

2010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 결과보고서

■ 작성자: 경기환경연합 김동근

1. 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일정 및 진행(담당)

11.16(화)		11.17(수)		11.18(목)	
일정	담당	일정	담당	일정	담당
10:00 도시주택실(지역 정책과, 도시정책 과,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주택정책 과, 토지정보과) (위원회 회의실)	경기환경 운동연합	10:00 도시주택실(택지계획과, 신 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위원회 회의실)	경기환경 운동연합	10:30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 회의실)	경기환경 운동연합
11.19(금)		11.22(월)		11.23(화)	
일정	담당	일정	담당	일정	담당
10:00 현장방문 DMZ	경기환경 운동연합	10:00 2청 도시환경국	모니터안함	10:00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경기환경 운동연합

2. 방청평가

1)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총평

- 위원회 전반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분위기
- 민주당 임종성 위원장 포함하여 9명의 민주당 의원과 5명의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1명의 진보신당 의원으로 구성
- 위원장 임종성 민주당

안승남(민주당) 간사 권오진(민주당) 의원 김주성(민주당) 의원 김진경(민주당) 의원

박인범(민주당) 의원 이재준(민주당) 의원 이재천(민주당) 의원 임채호(민주당) 의원

이의용(한나라당) 간사 김시갑(한나라당) 의원 조성욱(한나라당) 의원 최철규(한나라당) 의원

홍범표(한나라당) 의원 최재연(진보신당) 의원

- 전체적으로 출석, 지각, 자리비움 등이 거의 없이 성실하게 행감에 참여.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 순서를 사전에 조정하고 모든 의원이 질의토록 준비하였으니 진행과정에서 위원장과 간사, 의원간의 소통이 정확치않아 당간의 발언순서 등으로 정회하는 등의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

- 피감기관의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과 준비를 질책하고 추가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정회하기도 함

- 민주당 진보신당 의원의 4개강 사업 관련 문제제기와 한나라당 의원의 개발 낙후지역 규제에 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었고 경기도시공사, 광고신도시 등의 문제를 쟁점화.

2) 피감기관 총평

-도시주택실

자료의 늦장제출, 그나마 의원들이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지 못한 자료제출

실장의 미흡한 답변을 상임위 위원장의 보완 요청에도 실과장들이 제대로 대응하지못함

-팔당수질개선본부

4대강 사업과 팔당 유기농 관련 질의에 대해 본부장 주관에 따른 답변이 많았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PPT를 사전에 전시하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일정에 의원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 수질을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준비

-환경국

-보전환경연구원

3) 상임위 개별 의원평가(성인지적 관점 포함) 및 총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위원회의 성격상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논조는 없었음.

-임종성(민주당) 위원장

성실한 참여와 진지한 자세로 상임위를 운영하였으나 행감 진행 중간중간 피감기관과 질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개인의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을 하여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있었음.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행감의 깊이보단 시간에 맞춘 원활한 진행에 중점을 둔 모습.

-안승남(민주당) 간사

간사로서 최대한 개인적 발언을 자제하였으나 의원으로서 준비해온 피감안은 강하게 제기하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지적.

사전 준비가 충실한 만큼 질의 수준도 높았으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권오진(민주당) 의원

성실한 자세와 진지한 자세가 돋보임. 공공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 지식, 그리고 의정에 대한 소신을 중심으로 행감을 진행.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는 좋았으나 자신의 발언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음.

-김주성(민주당) 의원

참여하는 자세와 태도는 진지하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력있게 행감을 준비한 듯하나 피감기관과 자신의 행감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

-김진경(민주당) 의원

피감기관별 많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준비한 건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행.

-박인범(민주당) 의원

타 의원에 비해 성실도와 진지도가 떨어짐.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중심을 두고 행감에 참여. 다소 당론과 어긋나는 지적과 발언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음.

-이재준(민주당) 의원

행감에 참여하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내용의 전문성 등이 돋보임. 피감기관 및 관련 실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철저한 준비로 행감을 진행. 미흡한 답변과 두루뭉실한 태도로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감기관에 대해선 공직자, 담당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요구하고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정책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임.

-이재천(민주당) 의원

행감에 참여하는 자세가 다소 수동적이라는 느낌.

-임채호(민주당) 의원

자료분석 및 준비에 철저. 다소 개인의 관점이 지나친 면이 보이나 사전제출 자료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방면의 준비를 한 노력이 보임. 미흡한 답변에 대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실과장들의 보충답변 요구 등 2010년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모범이 되기도 함.

-이의용(한나라당) 간사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곤 행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간사로서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 비해 지역구 현안을 탈피한 경기도 개발계획 전반을 다룬 질의를 전문성있게 하기도 함.

임종성 상임위원장의 부재에 따라 임시로 위원장직을 맡아 행감을 진행하기도 함.

-김시갑(한나라당) 의원

북부지역 의원으로 개발규제해소에 대한 질의를 위주로 함.

-조성욱(한나라당) 의원

행감 전반에 대해 소극적. 지역구와 연관된 사안에 중점을 두고 행감에 참여한 듯 함.

-최철규(한나라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된 민원성 질의

-홍범표(한나라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된 민원성 질의

-최재연(진보신당) 의원

행감자료를 전체적으로 차분히 검토하고 문제부분을 찾아 질의안을 작성한 노력이 보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측하고 질의내용을 보충할 자료를 표, 그래프 등으로 설득력있게 준비. 피감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업무와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함.

* 우수 도의원 2명 : 이 재 준, 최 재 연 (항목별 평가표 참고)

■ 항목별 평가표 -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

인원현황		개인일반(30점)			개인별 전문성(40점)				성 인 지적 관점 (15 ~ -5점)	합
		참여 성실	태도 진지	공익 대표	사전 분석	질의 수준	피감기관 부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1	임중성
2	안승남	48	50	45	42	46	45	39		315
3	권오진	50	50	44	44	45	44	37		314
4	김주성	50	44	46	36	39	37	32		284
5	김진경	47	38	40	37	39	42	33		276
6	박인범	38	32	34	34	33	38	31		240
7	이재준	50	50	48	46	46	45	40		325
8	이재선	43	44	40	38	32	38	32		267
9	임채호	47	48	45	48	45	45	35		313
10	이인용	50	44	45	42	39	45	34		299
11	김시갑	43	38	33	36	32	38	31		251
12	조성욱	43	42	30	38	36	39	31		259
13	최철규	36	37	30	31	28	38	32		232
14	홍범표	42	35	34	31	36	37	31		246
15	최재연	50	50	48	46	47	45	36		322